

상록탑

물과 사랑의 형태 그리고 신의 얼굴

어느 부족이 신으로 받들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과 인간과 사랑을 다룬 영화 <The Shape of Water>(2018)을 보고 신의 얼굴과 사랑의 모양을 생각했다. 감독이 만 들고자 노력했던 'Lovable한 괴물' 앞에 감히 타인의 사랑에 값을 매기던 모든 목소 리가 무색하다.



유현빈
대학취재부장

“

바람직한 사랑 정의하는 것,

물의 형태를 논하는 것과 같아

”

에 스민다. 물은 흐르고, 멈출 듯 흔들리고, 왈칵 솟구치며 가라앉은 것을 감싼다. 사랑 도 물도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동시에 내 시선이 닿은 그곳에 존재한다. 흘러가는 말로는 물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저 모든 것을 씹 없이 매만지고 어우러지며 덮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물도, 사랑도, 신도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는 모

든 것을 미뤄둔 채 신에 관한 것을 넘보는 것 자체가 가담키나 한 일인가.

영화는 60년대, 냉전 시대의 한복판인 미국에서 전개된다. 늙은 무직의 게이와 흑인 여자와 장애를 가진 청소노동자가 스스로 신의 얼굴에 가깝다고 굳게 믿는 이를 제치고 언어를 구한다. 신이 원하는 '옳은' 것을 넘겨줬던 범인(凡人)들은 청소 노동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이들을 스쳐 지날 뿐이다.

때때로 신은 각자가 도저히 믿지 못할 모습으로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고 누군가 말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는 순간, '당신은 신이었구나' 알아채게끔 하는 것이 신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느낀 것이 당신에게도 닿길 바라며 영화속 시를 인용한다.

'Unable to perceive the shape of you, I find you all around me, Your presence fills my eyes with your love, It humbles my heart, For you are everywhere. (그대의 모양 알 수 없네. 내 곁엔 온통 그대뿐. 그대의 존재가 사랑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마음 겸허하게 하네. 그대가 모든 곳에 존재 하기에)'

학생 칼럼

이게 내 취향이야

'너 다이어트해?' 내게는 너무나도 피곤한 말이다. 그냥 어쩌다 보니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요거트 종류를 가장 좋아할 뿐인 내가 고등학교 때 급식 대신 이런 것들을 싸서 다니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걱정된다며 내게 와서 한마디씩 이런 말들을 의구스러운 눈빛과 함께 던졌다.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냥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지!"라며 조금은 장난스러운 핀잔을 줬다.



김우정
교공·16

“

이화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받을 수 있어

”

들도 한몫 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존중 받을 수 있다. 이화에서는 내가 요거트만 먹더라도 그게 내 취향이라고 밝히면 모두가 인정해줬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지금까지 존중해 왔던 방식과 같이.

친구들과 여름에 미국으로 2주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내가 평소 좋아하던

요거트 종류도 여러 가지, 치킨랩 종류도 여러 가지였던 미국에서 나는 내가 먹어볼 수 있는 모든 종류들을 다 먹어 보기로 결심했다. 내 친구들은 이런 음식들을 나만 큼 좋아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내 '맛집 탐방'을 존중해줬고 그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혼자 가서 먹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화만큼 내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다. 이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입든, 어떻게 화장을 하든, 어떤 악세사리를 하든 "이것이 내 취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취향은 존중받지만 소수의 취향은 '틀리다' 혹은 더 나아가 '괴상하다'라는 평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취향은 더 숨겨지게 되고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이화에서 우리는 모두가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것을 알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내 취향이야.'

여론광장

화장실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십 년 전 지하철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다. 성별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성을 고려한 '성중립 화장실'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 장애인의 성을 무시해서였다.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고, 성별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남녀가 뭉뚱그려졌던 장애인 화장실은 여자 장애인 화장실과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구분됐다. 장애인권이 '조오금' 나아졌다.

계속 화장실 이야기를 해보자. 장애인용 화장실은 사실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닌 '겸용' 시설이다.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공공화장실 줄을 길게 서면서 장애인용 칸만 비워놓는 현상을 많이 접한다. 겸용 시설을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용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는 작명도 그렇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인식과 물리적 환경이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손잡이가 설치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출입구와 내부 공간이 넓은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편하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이름 붙는 순간 비장애인인 장애인 사이에 선이 그어진다.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장애인인 장애인 구분 강조한다.

비장애인, 장애인 분리를 유도하는 화장실만 보다 지난 달 한 휴게소에서 새로운 이름의 화장실을 접했다. '다목적 화장실'이다. '여자 다목적 화장실'에는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아기 5종류의 픽토그램이, '남자 다목적 화장실'에는 남성·장애인·노인·아기 4종류의 픽토그램이 붙어있다. 장애 비장애 구분을 열게 하는 동시에, 누구든 편하게 목적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욕아가 여자 남자 공통의 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했다. 살면서 본 화장실 중에 가장 멋졌다.

요즘엔 이동약자·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늘어났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보다 장애인들 간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장애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지금까지 '장애인용'이라 뭉뚱그려져 불려온 건, 장애인이 남녀 구분 없이 뭉뚱그려진 것과 연결된다. 장애인 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하게 명명하는 것 말이다. 이동약자 시설이라 하면 전보다는 구체화된 명명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동약자라 함은 임산부·영유아동반자·노인 등을 포함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가 강조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동약자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전보다 나은 방향을 고민한다. 약자·소수자는 어떤 집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므로 그때그때 새로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소수자의 다양성과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비소수자와의 차이를 견고히 하지 않도록 연결되는 움직임 이기를 바란다. 김미현(커미·15)

사설

멀리 보고, 근본적 해결 논의해야

3월27일 교내 방송국 EUBS는 최성희 학생처장과 조형예술대학 및 음악대학 교수 미투(#MeToo)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교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인터뷰에서 최 학생처장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 그 이상의 신속한 대응은 힘들다는 한계를 밝혔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과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는 점은 반길 만하다.

학교가 피해자의 편임을 선언하고 현 사안에 주력을 다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 이는 현재 상황이 '권력형 성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만으로도 부족한 시점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권력형 성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에 적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 및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고조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본교 미투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 논의를 사건

해결 이후로 미룬다면, 사회 및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지금보다는 감소한 국면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제도적 개혁이 지금 당장 논의 시작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현 피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지이자 지원이기도 하다. 물론 학교는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학교가 피해 학생들의 편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가시적 변화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은 가해 교수가 처벌을 받는 그 시점까지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완벽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적어도 제도 보완 및 수정을 위한 작은 논의라도 시작된다면 이는 피해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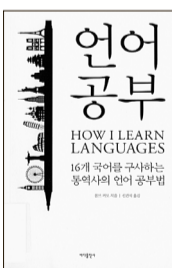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총학생회(총학) 및 학생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총학과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생총회 및 '당신과 우리를 위한 행진'을 통해 교수 처벌 및 장기적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충분히 피력해왔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이화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다.

만평 박채원 만평가 cw.ante.park05@ewhain.net



금주의 책



언어 공부 : 16개 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의 언어 공부법
- 룬보 커트 지음, 서울: 바다출판사, 2017.
이 책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여 16개 언어를 구사하는 번역가이자 통역사의 삶을 살게 된 저자의 외국어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경험을 마치 어느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능보다는 동기나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과 성실성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970년 출판된 이 책이 48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언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저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의 언어에 대한 열정과 경험이 이화인 여러분의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2층 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400.7.L838한]

0228~0329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Macroeconomics 6th ed	Williamson, Stephen D.	Pearson	2018
2	동양철학 스케치	김선희	풀빛	2009
3	신과 함께: 이승편·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4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택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ewey, Melvil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11
6	太白山脈: 趙廷來大河小説 제3판	조정래	해냄	2001
7	Behavior management: positive applications for teachers 7th ed	Zirpoli, Thomas J.	Pearson	2016
8	신과 함께: 신화편·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9	웅정항제: 제왕삼부부 제2작: 열위허 역사소설	이월하	더봄	2015
10	Korean art book	곽동석 방병선 김재열 윤영수 정병모 박경식 최성은 이한상	예경	2000